

방위산업

Issue Comment

Overweight

무기체계 미국 수출: 세계로 가는 엘리베이터

자주포 미국 수출, 일개 수출을 넘어선 기념비적 의미

지난 8월 1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Hanwha Defense USA가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시제품 계약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수주의 성과는 단순하지 않다. 일개 기업의 무기체계 수출이라는 사실을 넘어 기업의 위상은 물론 한국 방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가치와 국내 방위산업의 확장성은 더욱 강력한 잠재력을 품게 되었다. 계약의 의미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축약한다.

- 1) 미국향 무기 수출의 국가적 한계(한미 RDP 미체결)를 기업이 극복
- 2) 소요군(한국군)발이 아닌 기업 자체 개발품으로 신제품 수출
- 3) 실전배치 사례 없이 실전경험 많은 경쟁 제품(Caesar등)에 앞서 선택
- 4) 호주, 유럽에 이어 북미에도 공급망 거점 교두보 마련
- 5)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 첫 진입, 향후 확장가능성 증대

국가적 한계를 극복한 기업의 힘: 제도를 이겨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주요 우방국 중 상호 국방 구매조약(RDP,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Agreement 또는 MOU)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어, 그간 미국향 완제품 무기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미국은 BAA(Buy American Act)로 모든 연방기관의 조달행위에 미국산 우선 구매를 강제하고 있으며 원가의 65% 이상이 미국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방분야에서는 50% 가격 가산 패널티를 부여하므로 일반적인 입찰을 통한 미국으로의 무기 수출이 대단히 어려워진다. 다만 이를 우회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동맹국과 체결하는 RDP이다. RDP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BAA 적용을 면제하며 미국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가격 경쟁이 가능하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산 우선 기조가 강화되면서 RDP관련 협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시제품 계약은 BAA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OTA가 적용되었다. 이는 연방조달규정(FAR)을 적용받지 않는 특별 예외규정 중 하나이다. 이는 미군의 무기소요가 그만큼 급하다는 방증이며, 전투력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적용할 만큼 해외 업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초기 소량의 시제품계약에 한해 불가피하게 OTA를 적용하며, 향후 최대 498대까지 생산이 목표인 양산계약에서는 연방조달규정을 적용하여 미국내 생산이 요구될 것이라는 점이 RFP에 명시되었다. 급한 와중에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기조가 반영된 모습이다. 이번 계약주체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Hanwha Defense USA인 이유도 향후 양산계약과 미국내 생산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즉 해외기업이 아니라 애초에 미국 기업으로서 진입하여, 미국 국내 조달의 형태로 BAA를 근본적으로 비껴간다는 전략이다. RDP 미체결이라는 국가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일개 기업의 노력으로 미국 무기시장을 뚫어낸 위업이다.

[조선/방산]

변용진

2122-9181

Yongjin.byun@imfnsec.com

잘 알려졌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이다. 미국은 SIPRI 2021~2025년 기준 전세계 무기 수출의 42%를 차지했으며 이는 2위 수출국인 프랑스의 점유율 9.8%와 압도적인 격차다. 반면 동시에 미국은 무기 수입에 가장 소극적인 나라 중 하나다. 자국산 무기 선호 기조로 인해 해외무기 도입에 각종 촘촘한 규제를 준비해 놓았으며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방부의 총구매금액 \$445.2B중 해외 구매액은 불과 3.6%에 해당하는 \$15.9B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물류, 건설서비스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기/탄약관련 비중은 9%로, 실제 미국방부의 연간 해외무기류 구매액은 14억 달러(약 2조원) 수준이다. 적지는 않지만 미국의 국력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금액이다. 그만큼 미국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시제품 계약이 양산계약까지 이어지게 되면 총 규모는 최대 498대, 금액은 미국의 연간 무기 구매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이례적 계약이 될 전망이다.

표1. Buy American Act: 미국산이 아니면 50%의 가격 페널티

구분	BAA(미국산 우선 구매법)
대상	모든 연방기관
물자	모든 조달품
지리적 제한	미국내 조달
미국산의 정의	미국산이 원가의 65% 초과해야 함 (29년 75%로 기준상향 예정)
페널티	미국산 아닌경우 20% 가산금 부과 (국방분야는 50%)
비고	RDP 체결국은 페널티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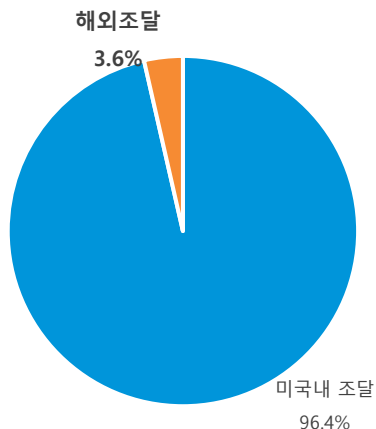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표2. 미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시제품 계약 vs 양산 계약 조건

	시제품 계약	양산 계약
체결시점	2026년 8월(완료)	2028년 2분기 목표
대수	6대 + 12대(옵션)	최대 498대
금액	1억 달러(초기계약분) ~ 2.6억 달러(총규모)	N/A
생산기간	1.5~2년	첫 2년간 24대 -> 이후 48대까지 증산목표, 총 11~12년
적용계약	OTA (Other Transaction Agreement)	DFARS (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Supplement)
생산지 조건	기타거래로 연방조달규정 미적용	국방분야 연방조달규정 적용
	제한없음	미국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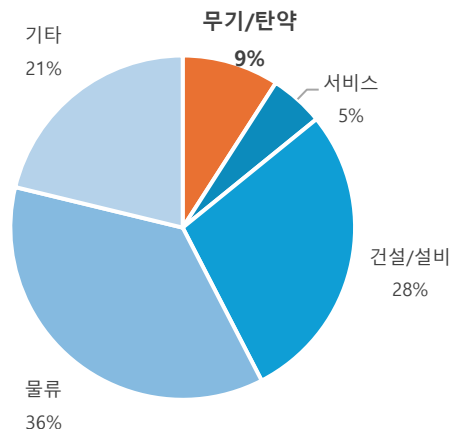
자료: 미국군,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미국방부 2024 총 구매액의 조달처 비중: 해외 3.6%에 그침



자료: DoD,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미국방부 2024 해외조달액의 항목비중: 무기류 9%에 그침



자료: DoD, iM증권 리서치본부

표3. 미국의 RDP 체결 현황: 총 28개 우방국

No.	국가	형식	RDP체결	NATO가입	No.	국가	형식	RDP체결	NATO가입
1	캐나다	MOU	1963	1949	15	스웨덴	MOU	1987	2024
2	영국	MOU	1975	1949	16	이스라엘	MOU	1987	-
3	스위스	MOU	1975	-	17	이집트	MOU	1988	-
4	프랑스	MOU	1978	1949	18	오스트리아	MOU	1991	-
5	독일	MOU	1978	1955	19	핀란드	MOU-)Agreement	1991	2023
6	노르웨이	MOU	1978	1949	20	호주	Agreement	1995	-
7	네덜란드	MOU	1978	1949	21	룩셈부르크	MOU	2010	1949
8	이탈리아	MOU	1978	1949	22	폴란드	MOU	2011	1999
9	벨기에	MOU	1979	1949	23	체코	Agreement	2012	1999
10	포르투갈	MOU	1979	1949	24	에스토니아	Agreement	2016	2016
11	튀르키예	MOU	1980	1952	25	슬로베니아	Agreement	2016	2004
12	덴마크	MOU	1980	1949	26	일본	MOU-)Agreement	2016	-
13	스페인	Agreement	1982	1982	27	라트비아	Agreement	2017	2017
14	그리스	Agreement	1986	1952	28	리투아니아	Agreement	2021	2021

자료: 미국 국방부, iM증권 리서치본부

표4. 글로벌 방산수출순위(2021~25) 및 RDP 체결 현황: 상위권 우방국 중 한국만 미체결

순위	국가	수출점유율 (%)	RDP체결시기
1	United States	42.0	-
2	France	9.8	1978
3	Russia	6.8	-
4	Germany	5.7	1978
5	China	5.6	-
6	Italy	5.1	1978
7	Israel	4.4	1987
8	United Kingdom	3.4	1975
9	South Korea	3.0	X
10	Spain	2.3	1982
11	Türkiye	1.8	1980
12	Netherlands	1.2	1978

자료: SIPRI, 미국 국방부, iM증권 리서치본부

표5. 대한민국-미국 RDP 체결관련 진행 경과

시기	경과
1990년대	• RDP 체결을 주요 정부 의제로 검토
2000년대	• RDP 체결에 따른 효과 검토
2010년대	•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부족에 따른 시장잠식 우려 • 수출시장 확대 관점에서 RDP 필요성 제기
2020년대	• 수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2022	•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로 RDP 체결 필요성 대두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포함, 협정 체결 가시화
2024.04	•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RDP 논의 개시 선언
2025.01	• RDP 체결 준비를 위한 민·관 합동 RDP 범정부 TF 출범 • 한미 국방부, RDP 신속 체결 추진에 합의
2026.08 현재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우선 기조 강화로 RDP 체결 교착상태

자료: 산업연구원, iM증권 리서치본부

소요군 의존에서 탈피, 기업 홀로 찾아낸 먹거리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오랜 기간 소요군인 국군의 소요에 따라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필요량을 납품하는 전통적 모델을 유지해 왔으며, 높은 내수 의존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22년 폴란드 대규모 계약을 계기로 수출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방산기업들은 본격적 확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무기 수입국들의 현지화 요구는 점점 강해졌으며 국군의 소요에 맞춰 개발한 국내용 무기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 방산기업들은 점차 수입국의 요구에 발맞춰 현지화 전략을 대폭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략의 첫 번째 성공사례가 2023년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이다. 기존 장갑차를 기반으로 호주의 요구사항에 100% 부응하여 새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현지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 계약으로, 우리 방위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리고 3년, 이번 미국 자주포 시제품 계약으로 두 번째 계단이 마련되었다. K9MH는 궤도형인 기존의 K9과 달리 차륜형으로 새롭게 개발된 무기체계다. 국내 업체의 주 소요군인 한국군은 물론 어느 군에도 실전배치 사례가 없으며 업체 스스로 개발하여 만들어낸 플랫폼이다. 주소요군 의존에서 탈피하여 기업 홀로 어려운 수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성과이다.

그림3. K9MH가 조립될 한화디펜스USA 오펠리카 공장



자료: 언론보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시제품 수출 계약된 K9MH자주포



자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iM증권 리서치본부

미국 수출은 이제 시작: 철저한 현지화로 교두보 확보, 확장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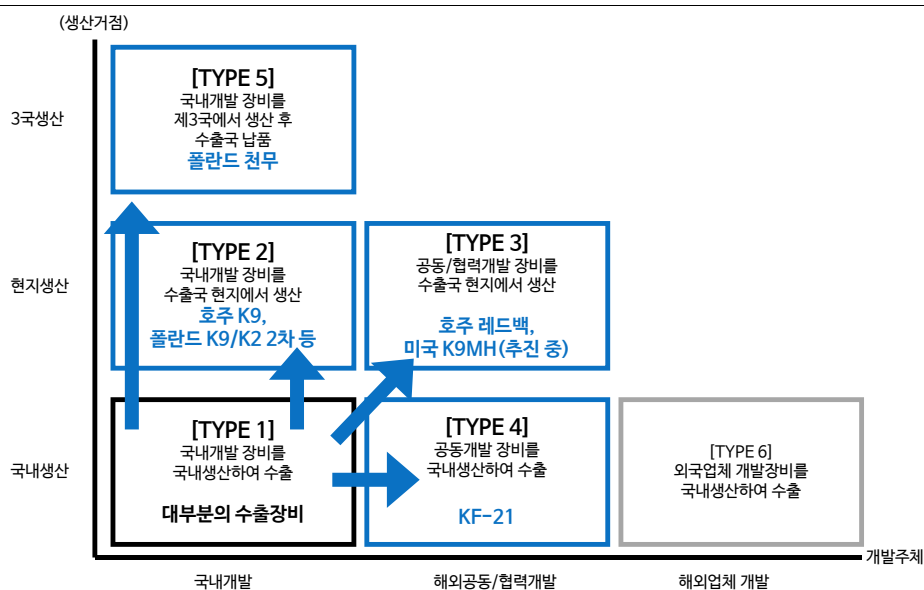
이번 자주포 시제품은 미국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에 위치한 Hanwha Defense USA공장에서 조립될 예정이다. 시제품의 특성상 핵심 부품들은 한국에서 제작 및 공수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조립 및 시험평가 등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양산단계에서는 최종 조립은 물론 대부분의 생산역무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곧 우리 무기체계의 공급망이 미국에서 형성될 것임을 의미한다. 무기체계는 30년이 넘는 생애주기의 유지보수가 구매 자체보다도 중요하므로 생산 및 유지보수의 거점이 되는 공장과 공급망은 향후 해당국은 물론 주변국가로의 확장에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

미국의 해외무기 수입은 자주포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역대 최대 무기 조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브래들리 장갑차 교체사업(XM30)은 당초 아메리칸 라인메탈 및 GDL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발 진행중이었으나 최근 후속 진행을 중단하고 기성품(레드백, LYNX, CV90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신속 도입이 점점 중요해지는 미국의 상황상 기존 개발계획이 취소되고 레드백 등의 기성품이 재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IG D&A가 협의 중인 비공 미사일 또한 미국 수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모든 요구조건과 테스트를 충족한 상태로 향후 미군의 예산안에만 반영된다면 곧바로 실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계약에 성공할 경우 LIG D&A또한 미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양산을 추진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수출은 이제 단순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넘어 선진형 수출모델의 모습을 속속 갖추고 있다. 폴란드 등 현지 거점을 확보하고 국내 모델의 현지생산이 추진되고 있으며, 호주와 미국에서는 현지형 모델의 현지 생산이 이루어진다. 폴란드 WB와 합작하여 폴란드에서 생산될 천무 미사일은 유럽산 제품으로서 유럽 전역으로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위상이 되었으며, 특히 미국 및 유럽의 방산업체에 뒤지지 않는 가치로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 적극적인 비중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5. 방산수출 방식 변화에 따른 해외 진출유형 - TYPE 1에서 TYPE 2,3,4로 진화 중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 2026-06-30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9.8%	10.2%	-